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종달리 송미영씨 댁, 송정희 조사.  
고순안(여, 1947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**[제보자]** 도체빋불은 상도 상도 안모살동네가 이제.

**[조사자]** 안모살?

**[제보자]** 안모살동네. 상도.

**[조사자]** 안모살.

**[제보자]** 모살 동네게. 그이 멘수동 강 그 그디. 그디 그 옛날 그 스삼사건 후에 우리가 가서 사름 영 곧는 거 보면은 제사 먹으레 갈 때도 불 펜직허민 그디 넘어가젠 허민 돌을 해서 딱딱헿 때리거든. 돌을 딱딱허민 그 도체빋불이 도망가 분덴 헤여. 도망가 분덴 허곡 막 구신 막 영 허민 췌돈 내여. 옛날에 십원짜리 췌돈 던져, 던져 동 이제 강 제사 옛날엔 밤중에 열두시 넘영 제 파지 파지 뉘사 끝나거든. 이것 저것 생각 안 형 열두시 제파지 끝나그네. 집이 들어오젠 허민 한시가 뉘어, 한시가 뉘가면은 그 밤중이니깐 도체비 나타났다 해서 그디서 영 던져 동 뉘날은 가보니깐 그것이 없더레. 그 돈이. 엇어젼어. 허니깐 그 모살동네난 파서 들어갓 인지. 그 구신이 던질 때에 그걸 받앙 간 건지 우리는 몰라. 쟁 그런 역사가 잇덴 헤여.

- 핵심어 : 상도리, 안모살동네, 도체빋불, 돌, 췌돈, 멘수동